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저지하고

명동성당 연실문 민중건강권 쟁취하자!!!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경제위기, 그것은 1998년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필수적 표현이다. 무차별적인 과잉증복투자로 인한 이윤율의 하락, 관치금융을 통해 재벌의 살찌우기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부패한 정경유착 구조는 바로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었으며, 독점재벌과 썩은 정치세력이어야만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다.

그러나 어차구니 없게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우리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로지 '재벌 살리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낳았으며,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소위 중산층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높은 실업률은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민중의 생존과 건강은 더욱 더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로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여 민중의 건강을 지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보건의료를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를 강화해 전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김대중 정부의 공약은 경제성과 채산성이라는 기준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키려는 방침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결핵왕국이라고 불리울만큼 결핵이 만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당 1명이 결핵환자이며, 10대 사망원인중 하나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과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제위기로 인해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키려는 방침은 결핵퇴치정책의 포기나 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환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할 경우 최고 43배나 오르게 될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결핵병원을 민간위탁시킨다면 이것은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국가 결핵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강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건강할 권리가 무시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는 상황에 맞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을 철회시키고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고자 비록 환자의 몫으로 지금까지 싸워온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에 오는 발족하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철회,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그리고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민중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1998년 6월 29일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1개단체, 학생단체 3

서울의료보건의료학생회

민중의힘연대

전남학생연대, 서울 학생연대, 서울학생연대

목포YMCA, 학생연대

목포민중학생연대, 목포학생연대

목포학생연대, 목포학생연대

33명

리서 시 리과장리

명동성당 연설문

: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의 배경과 우리의 입장

87년 오늘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바람에 못이겨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군사독재정권, 민주주의의 적으로 꼽히던 노태우의 대선 공약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은 90년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외치던 DJ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말하는데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를 향해 민중의 뜻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학생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이병오입니다.(꾸벅)

3월 말 우연히 국립목포결핵병원이 민간위탁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4월 7일 환자 비대위 위원장 배상훈씨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학생들이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걸쳐 5월 9일 부터 첫모임을 하면서 광주전남학생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학우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서명작업과 축제기간에 성금마련을 위한 주막을 하였습니다. 학생단위에서 알리려고 노력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이 걸리면 자기의 돈으로 치료하는게 당연하지요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으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유방임형 의료체계에 적응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료환경에서 국민들은 의료에 대한 상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결핵의 경우도 병에 걸린 사람이 돈을 내고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하는게 나쁜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을 파악하지 못한 의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와 민간위탁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환자비대위가 문제제기~~ 모임을 꾸리고 활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와 친구들에게 민간위탁을 찬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구조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국립병원중 영세민을 위한 값싼 의료서비스를 책임져 왔~~ 첫째,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병원을 민간~~ 둘째, 공공의료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며, 의료의 상품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① 이에 우리는 민간위탁안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보건 공공의료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이익창출 수단으로 바라보는 철학에서 나온 ~~것~~ 논리이며 그동안의 파행적인 의료구조의 모순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세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부채를 극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반응}
이번 민간위탁안은 결핵병원의 입지조건을 노린 목포지역 인사의 결핵 병원운영안이 정개위에 받아들여져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결핵정책을 한 개인의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복지부와 논의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안은 우리나라 결핵정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부는 민간위탁안이 발표된 이후, 환자 비대위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야 결핵실태 조사와 민간위탁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환자비대위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민간위탁안은 차질없이 수행되었을 것이고 더이상 결핵정책을 내지 않았겠군요.

^{이 대한 반응}
IMF 구호체제 이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병원의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을 계획중입니다. 어떻게 기업과 병원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원은 돈을 벌기위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국립병원은 영세민을 위한 값싼 의료를 책임져 왔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실업자는 늘어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은 더욱 나빠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병원을 민간위탁하여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
^{이 될}
리는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87년 6월 25일
듯이 정부가 민간위탁안을 철회하도록 이 자리에서 발족을 갖는

- ① 이에 우리는 민간위탁안을 하루빨리 철회하기를 요구하며 아울러 보건소, 결핵협회 그리고 결핵병원의 상호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결핵관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사회복지부문의 축소로 IMF 시기는 해결 수 없다는 것은 DJ 정부는 안아야 하며, 재정개혁중의 일환 필요 사회복지부문에 대해 특사근 능력이 줘 줘야 합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주)공보 118호

자유로운 호흡을 기르라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9-1-5 투쟁 322일째

투쟁 속보 118호

89년 6월 17일 서울주정관부가 발송하였고, 8월 26일 공동대책위가 발송했습니다. 투쟁속보를 퍼
우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98년 12월 31일 - 99년 1월 4일

★목포병원상황

민간위탁투쟁을 막아왔던 파장급 관리자들이 새로운 조직의 간부로 발령받아 전출되어 분자들 사
이에 깊은 배신감이 팽배해있다. 직원들 또한 국외이탈의 계수조정심의회에서 예산문제가 처리되
지않아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병원장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총무실에서 10%이상 민간
위탁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예상은 장관의 결심이 굳건하기때문이라고 직원들
을 안심시키고 있음.

지역의 흐름은 목포병원을 위탁받기위해 4개정도의 의료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니 확인되는 것은
대중원천이고 지방의료공사원 목포의료원에서 목포병원을 자신들에게 위탁해달라고 사회 시의회
를 상대로 작업을하고 있고 실제 서울주정관이 의뢰후 뒤끝이에 갔던 순찰에서 목포의료원판공자
를 지역유지로서 보이는 사안들이 70%는 지역의료원으로 병원을 넘겨지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목포투쟁현황

목포투쟁을 유세할수 없을 정도로 비대의 파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태
중보법정(박원용) 경우 재발이되어 항쟁대로 치러라고 있었으나 막아엎어는 상대인 현재 병원
환자 320여명중 20-30명정도가 약제내성으로 막아엎어는 상대 각병동 비대위대표들도 재발로 인해
87년 항쟁의 성과가 6.29선언에 모두 담기지 못했지만, 87년 노동자, 민
중의 항쟁이 없었다면 군사독재정권은 6월 29일 손을 들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번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비대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열심히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자리는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87년 6월 29일 항복선언을 들었
듯이 정부가 민간위탁안을 철회하도록 이 자리에서 발족식을 갖는 공
대위가 앞으로 힘껏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8년 6월 29일

이 병 오

사무국장.

민원권 1114 - 8114.

사무국장 김재광. 015-8352-1012.

제 목:[목포결핵병원]투쟁속보118호

자유로운 호흡을 가로막는 준비된 학살에 대한 반격!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9-1-5 투쟁 322일째

투쟁 속보 118호

98년 6월 17일 서울투쟁본부가 활동하였고, 6월 29일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었습니다. 투쟁속보를 띄우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 98년12월31일 - 99년1월4일

★목포병원상황

민간위탁투쟁을 막아왔던 과장급 관리자들이 새로운 조직의 간부로 발령받아 진출되어 환자들 사이에 깊은 배신감이 팽배해있다. 직원들 또한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심의에서 예산문제가 처리되지 않아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병원장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종무식에서 90%이상 민간위탁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예상은 장관의 결심이 굳건하기때문이라고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있음.

지역의 호흡은 목포병원을 위탁받기위해 4개정도의 의료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나 확인되는 곳인 애증원뿐이고 지방의료공사인 목포의료원에서 목포병원을 자신들에게 위탁해달라고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작업을하고 있고 실제 서울투본이 회의후 되풀이에 갔던 술집에서 목포의료원관계자와 지역유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70%는 목포의료원으로 병원을 넘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목포투본결정

목포투본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비대위 환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태.

홍보팀장(박원용) 경우 재발이되어 항생제로 치료하고 있었으나 약이없어는 상태임. 현재 병원 환자 320여명중 20-30명정도가 약제내성으로 약이없는 상태 각병동 비대위대표들도 재발로 인해 활동을 못하고있는상태

이런상황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있었음

1. 비대위대표가 없는 병동에서는 신입환자를 중심으로 대표을 세운다.
2. 이후 투쟁과 관련하여 서울투본과 함께하고 도청투쟁은 10명-15명정도가 참여할수 있게한다.
3. 서울투본이 참가자 개인에게 편지로 행동방침을 전달한다.
4. 청와대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킨다.
 - 비대위장이 병원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뚜렷한 반응을 받지는 못함.
 - 도청투쟁에 참가하는 환자중 입원전 농민회등에서 투쟁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여러분이 있어 이후 비대위 활동에 청신호를 밝혀줌.
 - 참가자와 서울투본이 연락망을 만들었음.
 - 날짜와 참가자를 보안에 부치기로 하고 1. 2. 3집결지를 합의하고 추후연락하기로함.
 - 목포병원에서 보고대회를 통해 신입환자에게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동참을 호소.

광주투위 2명 50명

→ 참모에 내지시 단하라
수신물내시라 100 인가.

30여명이 약에 내성에 인가.

제 목:[목포결핵병원]29일 공대위발족식합니다.

올린이:서의청 (이재현) 98/06/28 09:28 읽음: 55 관련자료 없음

국립 목포 결핵 병원 민간 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11일 배상훈 비대위원장님을 통해 목포 환자 비대위가 서울상경투쟁을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일 목포 비대위는 명동성당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대위(준)은 서울투본이 명동성당에서 안정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돕는 것, 그리고 서울투본이 서울에서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대위(준)은 하나의 연대 조직체로 발족하여 서울투본과 함께 목포 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이에 공대위가 29일 발족합니다. 공대위는 앞으로 선전활동, 서명전, 재정사업, 항의방문등을 통하여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발족식 : 29일 오후 4시 명동성당 앞

■ ■ 참가 단체

■ 보건의료단체 : 서울보건의료청년회,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결핵병원 투쟁 전담반 구성)

■ 학생단체 : 경인지역 : 경인 의학협(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

"대학교육개혁과 교육범죄자 추방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다녀와서

근간에 불거져 나오는 대학의 각종비리들이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 대학교육자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이에 분노한 교수와 학생들은 동화빌딩에서 '대학교육개혁과 교육범죄자 추방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진행했고, 대학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교육부앞에서 진행했다.

상반기부터 불거져 나오는 재단의 비리는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의 횡령, 교수임용시 금품 요구, 재단측의 비리를 은폐하기위한 교수협의회의 탄압, 재임용탈락, 학생회간부구속등으로 그 정도가 점점 포악해져가고 이에 새정부에서는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한채 오히려 폭력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학의 거품빼기의 명목으로 교수감면, 연구비 축소, 학부제실시로 학과축소등등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교구조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이것의 핵심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이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감면이나 연구비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수율이 현재보다 몇 배는 더 확대되어야하며,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연구비확보가 증가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역행하는 행위를 교육부에서는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구조조정이전에 한국대학이 고질적으로 안고있는 사립학교의 문제를 먼저 해결